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1.8.5

코로나 확산과 다소 매파적인 클라리다 발언 영향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부진한 민간 고용 발표로 하락 출발 후 다소 매파적인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발언으로 낙폭이 확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 부각도 하락 요인
- 특히 호텔, 레저, 항공, 산업재, 에너지 업종이 부진한 반면, 언택트 관련 소프트웨어, 반도체, 의료 기기 등이 강세를 보이자 나스닥이 상승하는 등 업종 차별화 진행
- 한편, 일부 개별 종목은 수급적인 요인과 일부 호재를 빌미로 급등하는 등 하락과 상승폭이 큰 변동성을 보이는 등 쓸림 현상은 지속
- 다우 -0.92%, 나스닥 +0.13%, S&P500 -0.46%, 러셀2000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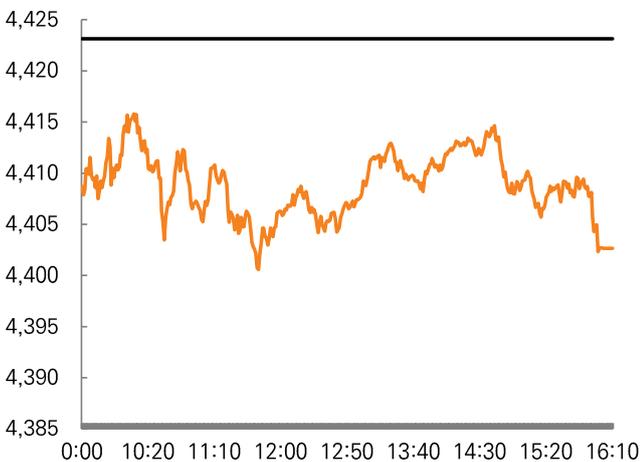
특이 종목

- AMD(+5.52%)는 화요일 강력한 성능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의 맥 용 GPU를 공개로 상승세 이어감. 엔비디아(+2.32%)는 ARM 인수 불발 불구하고 파트너 관계 기대로 목표주가 상향 조정되자 강세
- 로빈후드(+50.41%)는 과거 밈 주식처럼 쓸림 현상이 유입되며 한때 80% 넘게 급등
- GM(-8.91%)은 가이던스를 상향 불구 9일부터 3개의 공장 폐쇄 소식 발표로 하락
- 리프트(-10.56%)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 불구 코로나 확산 여파로 급락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1.38%, MSCI 신흥 지수 ETF는 0.5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45.66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1% 상승. KOSPI는 소폭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한국 증시에서 최근 외국인이 개별 반도체 업종에 대해 적극적인 매수세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 그러나 반도체 업종의 강세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과 엔비디아의 ARM 인수 실패 가능성이 부각된 이후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오늘 엔비디아가 상승 했는데 ARM 인수 실패해도 협력을 통해 이를 돌파 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 이를 감안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 후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 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280.38	+1.34	홍콩항생	26,426.55	+0.88
KOSDAQ	1,047.93	+1.14	영국	7,123.86	+0.26
DOW	34,792.67	-0.92	독일	15,692.13	+0.88
NASDAQ	14,780.53	+0.13	프랑스	6,746.23	+0.33
S&P 500	4,402.66	-0.46	스페인	8,792.90	+0.23
상하이종합	3,477.22	+0.85	그리스	895.71	+0.06
일본	27,584.08	-0.21	이탈리아	25,490.22	+0.5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발언 ②미국 고용 부진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미국의 경제에 대해 2분기 GDP 데이터 발표로 경기 회복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전환 했다고 주장. 특히 2개월만에 끝난 경기 침체를 뒤로하고 회복기에서 확장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는 통화 및 재정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언급. 고용은 경기 회복기에 GDP 회복보다 뒤처지기에 이러한 정책 지속은 당연하다고 주장. 인플레이 전망은 연준의 예측 중앙값의 경로를 따라가고 있어 걱정하지 않다고 언급.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핵심 PCE 인플레이션이 3%에 도달해도 ‘보통’의 오버슈팅으로 간주한다는 점과 항상 그렇듯 모든 전망에는 위험이 있고 인플레이 전망에서의 위험은 상방에 있다고 주장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연준이 주장하는 금리 인상 필수 조건은 2022년말에 충족될 것이라고 언급. 특히 인플레이 관련해서는 연준이 명시한 ‘일정기간 동안 2%’ 관련해서는 2022년과 2023년에 충족할 것이며, 최대 고용이라 할 수 있는 실업률 3.8%는 2022년말에 도달할 것이라고 언급. 마지막으로 클라리다 부의장은 지금까지의 경제 회복에는 놀랍고 더 많은 놀라움은 준비되어 있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이러한 발언 이후 미 증시는 매물 출회되며 낙폭을 확대했는데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으로 추정. 실제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고용지표 부진으로 1.13%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클라리다 발언 후 1.2%를 넘기도 했음. 물론, 이후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로 재차 하락했음

미국의 7월 민간고용이 지난 5월 88.2만 건에서 6월 68만 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33만 건으로 큰 폭으로 둔화. 특히 소기업이 20.3만 건에서 9.1만 건으로 감소했으며 중견기업은 22.8만 건에서 13.2만 건, 대기업이 24.9만 건에서 10.6만 건으로 감소. 세부적으로 보면 상품생산 고용이 5.6만 건에서 1.2만 건 증가에 그쳤는데 건설은 3.6만 건에서 1천 건으로 제조업은 1.6만 건에서 8천 건으로 둔화. 민간 서비스 고용은 62.4만 건에서 31.8만 건으로. 이는 레저 및 접객업이 33.2만 건에서 13.9만 건 증가에 그쳐 2월 이후 가장 낮았으며 교육 및 건강서비스 부문은 11.1만 건에서 6.4만 건, 무역, 운송 부문도 7만 건에서 3.6만 건으로 감소. 금융서비스 부문은 7천 건에서 9천 건으로 증가.

대체로 고용은 9월 6일 미국 노동절 추가 실업급여 중단을 앞두고 고용 병목 현상과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른 레저, 접객업 고용 급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실제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CDC)는 신규 확진자 중 인도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93.4%를 차지해 5월 초 3.1% 기록에서 급증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이렇듯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 이 여파로 고용 병목 현상이 완화 된다고 해도 코로나 이슈로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 이는 경기 회복 속도 둔화를 의미해 오늘 여행, 레저, 항공, 에너지, 산업재, 소매판매 업종 등이 부진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반도체, 언택트 강세 Vs. 여행, 레저 등 컨택트 하락

AMD(+5.52%)는 화요일 강력한 성능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의 맥용 GPU를 공개로 상승세 이어감. 엔비디아(+2.32%)는 ARM 인수 불발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파트너 관계 유지할 것이라는 소식을 기반으로 목표주가 상향 조정 소식에 강세. 이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8% 상승.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업체인 페이컴 소프트웨어(+10.70%)는 이익 개선과 성장에 대한 기대로 급등. 로빈후드(+50.41%)는 과거 밈 주식처럼 쏠림 현상이 유입되며 한때 80% 넘게 급등. 블리자드(+2.12%)는 견고한 실적 발표로 상승. 줌 비디오(+6.86%)는 코로나 재 확산 우려로 급등

GM(-8.91%)은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 했으나 부진한 실적 발표와 함께 9일부터 3개의 픽업트럭 조립 공장 폐쇄 소식 발표로 하락. GM은 이번 공장 폐쇄는 코로나로 인한 반도체 공급 제약으로 일시적인 폐쇄라고 발표. 포드(-4.99%)도 동반 하락.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10.56%)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 불구 코로나 확산 여파로 급락. 우버(-2.29%)도 동반 하락했고 시간 외 실적 발표 후 6% 하락 중. 부킹닷컴(-2.51%) 등 여행, 카니발(-1.82%) 등 크루즈, 델타항공(-3.57%) 등 항공, 라스베이가스 샌즈(-3.16%) 등 리조트 업종은 코로나 이슈로 하락. 엑스모빌(-2.34%), 셰브론(-2.24%)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부진. CVS헬스(-2.92%)는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소식에 하락. 암젠(-6.46%)은 견고한 실적 불구 가이던스 하향 조정으로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4.49	대형 가치주 ETF (IVE)	-1.06
에너지섹터 ETF (OIH)	-6.29	중형 가치주 ETF (IWS)	-1.05
소매업체 ETF (XRT)	-2.76	소형 가치주 ETF (IWN)	-1.92
온라인소매 ETF (IBUY)	-1.02	대형 성장주 ETF (VUG)	+0.07
금융섹터 ETF (XLF)	-0.84	중형 성장주 ETF (IWP)	+0.13
기술섹터 ETF (XLK)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0.57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15	배당주 ETF (DVY)	-1.28
인터넷업체 ETF (FDN)	+0.43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22
리츠업체 ETF (XLRE)	-0.32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21
주택건설업체 ETF (XHB)	-1.08	미국 국채 ETF (IEF)	-0.03
바이오섹터 ETF (IBB)	+1.62	하이일드 ETF (JNK)	-0.18
헬스케어 ETF (XLV)	-0.42	물가연동채 ETF (TIP)	-0.19
곡물 ETF (DBA)	-0.48	Long/Short ETF (BTAL)	+0.29
반도체 ETF (SMH)	+1.09	모멘텀 ETF (MTUM)	-0.19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통신	272.91	+0.24	-1.49	+1.60
IT	2,707.30	+0.19	+0.91	+1.93
유틸리티	339.22	-0.14	+0.54	+3.16
부동산	290.34	-0.35	+0.19	+2.38
헬스케어	1,556.43	-0.42	+1.42	+3.54
금융	608.59	-0.76	+0.61	+0.58
경기소비재	1,441.60	-0.84	-1.76	-1.54
소재	521.24	-0.99	+0.31	+0.62
필수소비재	730.88	-1.26	-0.38	+1.11
산업재	867.18	-1.37	-0.14	-0.75
에너지	366.06	-2.93	-2.68	-6.9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매물 소화 과정 진행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는 1.38%, MSCI 신흥 지수 ETF는 0.5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145.66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1% 상승. KOSPI는 소폭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 S&P지수 최고치 경신 영향으로 상승 출발. 장중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자 본격적인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 기조가 유입되며 상승 폭 확대. 특히 외국인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를 기록했고, 선물 순매수에 따른 기관 투자자들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며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도 특징.

이런 가운데 다우와 S&P500 지수가 고용 부진과 다소 매파적인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발언으로 하락한 점은 전반적으로 차익실현 욕구를 높일 것으로 전망. 특히 미국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나온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된 점은 부담. 여기에 연준 부의장의 발언 또한 수급주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한편, 미 증시의 특징 중 하나가 일부 개별 종목군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된 점인데 이는 한국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 최근 외국인이 지수 보다는 개별 반도체 업종에 대해 적극적인 매수세를 기록하자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 오늘도 미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8% 상승해 이러한 경향을 이어갈 것을 기대.

그렇지만 최근 미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의 강세는 AMD(+5.52%)의 개별적인 이슈와 엔비디아(+2.32%)의 ARM 인수 실패 가능성이 부각된 이후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오늘 엔비디아가 상승 했는데 ARM 인수 실패해도 협력을 통해 이를 돌파 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 이를 감안 반도체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한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기보다는 하락 출발 후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 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서비스업지수 개선 Vs. 고용지표 둔화

미국 7월 ADP 민간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수는 지난달 발표(68만 건)나 예상(70만 건)을 크게 하회한 33만 건 증가에 그침. 소기업 고용(20.3만 건→9.1만 건), 대기업(22.8만 건→10.6만 건) 등 대부분 급감. 서비스 생산 부문 전체로 봐도 62.4만 건에서 31.8만 건으로 급감

미국 7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지난달(60.1)이나 예상(60.4)을 상회한 64.1로 발표되며 사상 최고 경신. 세부항목을 보면 상업활동(60.4→67.0), 신규수주(62.1→63.7), 고용지수(49.3→53.8) 등 대부분이 상승. 마르키트가 발표하는 미국 7월 서비스업 PMI는 지난달(64.6) 보다 둔화된 59.9를 발표 했으나 잠정치(59.8)에서 상향 조정

미국 모기지신청건수는 지난주 발표(wow +7.0)를 하회한 전주 대비 1.7% 감소. 한편, 30년 모기지 금리는 지난주 3.11%에서 3.07%로 하락해 2월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

미국 7월 자동차 판매는 연율로 지난달 발표(1,543만대) 보다 둔화된 1,473만대를 기록. 승용차는 지난달 369만대에서 351만대로, 픽업트럭은 1,174만대에서 1,121만대로 둔화



매파 연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우려로 금리, 유가 하락

국제유가는 미 질병통제 예방센터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93.4%가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발표하자 향후 신규 확진자 급증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여기에 중국에서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이후 일부 봉쇄가 진행 되고 있다는 점도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 물론 미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 주 원유재고가 362만 배럴 증가 했으나 가솔린은 529만 배럴 감소 했다고 발표해 여전히 수요 증가는 이어가고 있으나 코로나 확산이 진행될 경우 이러한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 더 나아가 드라이빙 시즌 이후 코로나 확산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담을 주며 3.4% 하락

달러화는 고용지표 둔화 여파로 한 때 91.8까지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이기도 했음. 그렇지만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으로 92.3을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는 등 변화를 보인 가운데 소폭 강세를 기록.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된 점도 영향.

국채금리는 고용지표 둔화 여파로 하락하며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 중 1.13%까지 하락. 그러나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2022년말에는 연준이 목표로 하는 금리인상 조건을 만족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하자 1.22%까지 상승하는 등 변동성을 보임. 그렇지만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우려가 부각되자 재차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금은 부진한 고용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자 소폭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 곡물은 혼조세를 보였는데 12일 발표되는 미 농무부의 곡물 보고서를 앞두고 기후 영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 한편, 8월은 대두 작황과 수확 등에 중요한 달이라는 점에서 날씨의 영향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높음.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25% 하락했으나 철근은 1.92%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8.15	-3.42	-5.86	Dollar Index	92.286	+0.22	-0.04
브렌트유	70.38	-2.80	-4.72	EUR/USD	1.1837	-0.23	-0.07
금	1,814.50	+0.02	+0.55	USD/JPY	109.48	+0.40	-0.39
은	25.46	-0.47	+2.35	GBP/USD	1.3889	-0.19	-0.09
알루미늄	2,566.50	-0.75	+1.16	USD/CHF	0.9065	+0.31	-0.40
전기동	9,466.00	-0.79	-2.27	AUD/USD	0.7381	-0.20	+0.07
아연	2,973.50	+0.13	-0.20	USD/CAD	1.2542	+0.02	+0.11
옥수수	546.75	-0.91	-0.41	USD/BRL	5.1773	-0.39	+1.18
밀	717.25	-1.00	+4.14	USD/CNH	6.4620	-0.07	-0.37
대두	1,325.75	+0.45	-2.59	USD/KRW	1,143.60	-0.41	-0.95
커피	175.65	+0.46	-12.37	USD/KRW NDF1M	1,145.66	-0.31	-0.47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179	+0.65	-5.40	스페인	0.229	-0.20	-4.30
한국	1.862	-3.30	+1.10	포르투갈	0.127	-0.40	-5.90
일본	0.006	-0.50	-1.40	그리스	0.543	-1.30	-6.80
독일	-0.501	-1.90	-5.10	이탈리아	0.552	-1.30	-6.3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